

不動의 설법이 말하고자 한 뜻은...

‘현대불교 입문’ (마츠다니 후미오 저, 정병조 前금강대 총장 편역)

19. 근본불교의 기본적 성격 ④

45년간의 설법(說法)
 붓다는 성도 이후 세상을 떠날 때까지 약 45년의 세월을 설법에 매진했다. 거의 반세기에 이르는 그 긴 세월을 이 스승은 쉬지 않고 광대한 인도의 곳곳을 누비면서 설법하였다. 이것은 참으로 희귀(稀貴)한 일이다. 그것보다 더 희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긴 세월에 이르는 설법은 시종부동(始終不動)의 원리에 의해서 일관되었으며 거의 변화가 없다는 점이다. 성도(成道)에서 최초의 설법에 이르는 동안에 닦은 기저(基底)는 그 이후 변화하며 흔들리는 일이 없었다. 이것은 지혜와 실천의 길을 가는 교조(敎祖)로서는 매우 지당하며 어울리는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설법과 비교해볼 때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한 후부터 그 비극적인 최후에 이르는 동안은 1년 혹은 길어도 3년을 넘지 않는다.

말하자면 그는 돌연히 나타나서 홀연히 떠난 것이다. 그 설법의 기간은 붓다의 그것에 비하여 매우 짧다. 더욱이 그 짧은 기간의 설법은 그 전반과 후반에 있어서 눈에 띄는 변화를 보여주지 않는다. 그 태도에 있어서도 그 내용에 있어서도 혼동(混同)할 수 없는 현격한 차이(差異)가 있다.

그런데 여기 붓다의 설법은 거의 반세기에 이르는 긴 동안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거의 주목할 만한 변화가 없는 점이다.

주지(周知)하는 바와 같이 이 스승은 때에 따라서 그곳에 적합하도록 또 사람의 근기(根機)에 상응(相應)해서 여러 가지로 그 법을 전개하였다. 소위 ‘대기설법(對機說法)’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설법은 아무리 가지각색이라 하여도 그 바탕에 있는 것은 언제나 정연하였으며 혼란스럽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들은, 어떠한 경전을 들고서 그것은 언제 설교된 것인가를 쉽게 짐작할 수는 없는 것이다. 물론 쉽게 알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어떤 경전에서는 아직도 젊은 이 스승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또 어떤 경전에서는 이미 늙어서 쇠약한 스승의 애처로운 모습을 볼 수 있다. 또 어떤 경전에서는 이 스승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사알리푸트라(사리불)가 아직도 견재(健在)하며 별로 만년(晩年)의 것은 아니라고 추측할 수 있는 것도 있다.

그러나 이 스승의 설법에는 그 사상의 변화나 혹은 태도의 뉘앙스에 따라서 대략 시기를 추측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 왜냐하면 그 긴 세월을 통해서 이 분의 사

상은 처음에서 끝까지 부동(不動)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 태도는 언제나 침착하였으며 그리고 간곡한 것이었다.

설법의 길을 담은 경전

그러나 아무런 변화 없는 것 속에서 우리들은 이 스승의 만년(晩年)의 설법에 관해서 좀 주의해야 할 변화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다. 특히 마지막 수개월에 있었던 유행(遊行)과 그 죽음을 기록한 <유행경(遊行經)>에 있어서의 이 스승의 설법에는, 역시 다른 경전에서는 볼 수 없는 그 무언가 다른 점이 있는 듯하다.

물론 붓다 설법의 부동(不動)의 바탕에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다. 그런 뜻에서는 역시 새로운 변화는 조금도 없다. 그러나 이제 이 스승은 이 지상(地上)에서의 삶을 끝내고 그 사랑하는 제자들과 영원히 작별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이 예상되었을 때 단연히 이 스승의 관심의 초점이 된 것은 멸후(滅後)의 교단(敎團)의 실태였으리라고 생각된다. 여기에 하나의 새로운 시야(視野)를 확대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루어진 스승의 설법에는 역시 다른 경전에서는 보기 어려운 긴장과 빛이 있었다.

많은 대기설법(對機說法)에 있어서, 이 스승은 분명히 그 근기(根機)에 알맞게 설법하기 위해서 여러 번 양보적(讓步的)으로 말하고 있다. 예를 들면 죽은 후의 생전(生天)의 소원을 품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그 소원을 그대로 두며, 그에게 적합하게 설교하며 지도하였다. 또 예를 들면 육방(六方)을 예배(禮拜)하는 것을 그 습관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그 습관을 그대로 지키게 하면서 그들을 교도하였다. 그 정연하며 움직이지 않는 바탕에는, 그러한 양보(讓步)를 하면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사정은 이제 좀 변하여졌다. 내가 죽은 후의 이 길의 실태, 이런 것이 관심의 초점이 될 때 이제 다시 한 번 더 분명하게 이 길의 기본적인 모습을 후대(後代)의 사람들을 위해서 규정하여 두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상황이 <유행경(遊行經)>에 있어서의 모든 설법의 첫 번째 과제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스승의 최후의 여행은 라자그리하(왕사성)에서 출발하여 북쪽으로 향하여 (벳다리촌) 지금의 파트나에서 강가—(간디스강)를 북쪽에서 건너며 벳살리(비사리)를 지나서 쿠쉬나가라의 맛라(말나) 족(族)의 소속 영토인 사라(紗羅)의 숲에 다다랐으며 거기에서 큰 임종(臨終)을 맞이함으로써 막



국보 제297호인 안심사영산회괘불탱(安心寺靈山會掛佛幀). 석가모니 부처님이 영취산에서 설법하는 장면을 묘사한 영산회상을 그린 괘불이다. 45년간 이어진 부처님의 설법은 처음과 끝이 다르지 않았다. 확고부동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위대한 이유이다.

을 내린다. 그 도중에 벳살리에 이르렀을 때 우기(雨季)가 시작되었다.

그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무서운 습도와 숨 막히는 고온(高溫)의 기간이다. 일행은 정한대로 우안거에 들어갔지만 늘고 쇠약한 붓다는 그때 무서운 병에 걸렸다. 격통(激痛)에 몹시 시달린 늙은 몸은 거의 사경(死境)에 이르렀다. 그러나 붓다는 있는 힘을 다하여 그 병을 참으며 겨우 생명을 유지하였다. 그때 붓다는 고통을 참으면서 이렇게 엄원하였다고 경전은 기록하고 있다.

“지금 내가 제자들에게 고(告)하지도 않았으며 최후의 교(敎)를 남기지도 않았으며

라한다면 그것은 나에게 있어 상응(相應)한 일은 아니리라. 나는 지금 노력하여 이 병을 참으며 수명(壽命)을 보전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러면 과연 붓다는 이러한 때를 당해서 그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한 것일까. 그것은 그 길을 가려는 자의 마지막 모습이 그 구극(究極)의 의지처(依止處)에 관한 것이며 또 그 교단(敎團)의 존재 형태에 관한 타협 없는 발언(發言)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경전에서 이 길의 가장 기본적인 성격에 관한 가르침의 말씀을 의심할 바 없는 명확한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행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의식에서 설법중심으로

형이하학(形而下學)과 형이상학(形而上學)이 있다. 형이하학은 우리네 일상 생활에서 흔하게 만날 수 있는 땀 냄새와 눈물과 웃음이다.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가 형이하학을 살리는 근본 바탕이 되는 셈이다. 여기에 비해 형이상학은 정신적 작용과 상상의 세계로 전달되고 있다.

마음이니, 영혼이니, 사후세계니 하며 하는님도 만들고 극락세계와 지옥과 연옥도 천사도 악마도 만들어낸다.

대개의 종교가 하학(下學)쪽보다는 상학(上學)쪽으로 기울고 있다. 쥐어주고 보여줄 수 없는 것일수록 신비스럽고, 베일에 가려진 것일수록 금강중이 더해지기 때문이다.

꿈은 증거와 물증이 없어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처럼, 종교에서 말하는 신의 섭리와 사후 세계도 영원한 물음표로 남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불교는 다르다. 부처님 가르침은 상학(上學)보다는 하학(下學)쪽에 그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불교는 지나간 어제의 지혜를 일깨워 주는 오늘을 중요시하는 종교가 불교이

(說法中心)으로, 그 중심(中心)이 바뀌어 가야 한다.

받아들이는 자비, 때리는 자비

<열반경>에 보면 받아들이는 자비(攝受)와 때리는 자비(折伏)가 등장한다.

섭수자비(攝受慈悲)는 어머니가 아이를 돌보고 기르는 마음으로 일체를 받아들이며, 용서하며, 절대적 사랑을 베푸는 것을 의미한다.

절복자비(折伏慈悲)는 엄격한 아버지가 자식의 바른 성장을 위해 호되게 꾸짖고, 나쁜 버릇을 고쳐가며 상(賞)과 벌(罰)을 분명히 가르는 엄한 교육을 의미한다.

이야기의 전개를 현실 쪽으로 끌어와 설명을 조금 이어가겠다. 어린 시절부터 소아마비를 앓아 걸음걸이가 불편한 아이가 있다고 하자. 바른 걸음마를 시키며 힘겨워하는 아이가 안쓰러워 엄마는 몇 번이고 아이를 품안으로 싸안으며 아이가 애처로워 속울음을 참아낸다. 아빠는 괴로워하고 힘겨워 하는 아이의 손을 이끌며 야단도 치고 몸의 균형도 잡아주며 고된 훈련을 거듭시킨다. 속

불교가 갈 길은 ‘부처님 中心’으로 회귀 섭수와 절복의 자비가 ‘생활 지혜’ 돼야

기 때문이다. 물론 부처님의 가르침은 형이상학이나 형이하학에 머물지 않는다. 이원론과 양분을 뛰어넘어 어떤 하나에도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사람 냄새가 물씬 풍긴다. 메시아(Messiah)적인 모습은 찾기 힘들다. 그러므로 부처는 신(神)이 아닌 사람인 것이다. 부처란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요즘에 보면 사찰에서 행해지는 불교의식이 대개는 형이상학 쪽으로 흐르고 있다. 죽은 후 7일마다 치르는 49재가 그러하고, 삼재풀이와 액난소멸기도 등이 그러하다.

49재 보령이 인기 있는 상품이 되어 팔리고 있고, 천불전(千佛殿)이 이제는 만불전(萬佛殿)으로 확대 되어 가고 있다. 바위가 비스듬히 누워 있는 사람 꼴이면 누워계신 부처(佛)라며 호들갑이다.

사찰을 알리는 광고 또한 재테크의 속셈이 부처님의 가르침보다 앞서 간다. 한국불교가 사는 길은, 그리고 밝은 미래는 부처님 가르침 중심으로 되돌아와야 한다는 것이다.

울음을 참으며 아이를 감싸는 엄마도 사랑이요, 야단을 치며 고된 훈련을 거듭시키는 아빠의 행위도 사랑이다. 그러므로 <열반경>에서는 자비를 두 가지로 분류해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 두 종류의 자비는 가정에서 뿐이 아니라, 사회 생활과 나라의 경영에도 기본 틀이 되어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친구 사이에도, 부부 사이에도, 형제 자매와 이웃 사이에도 섭수와 절복은 필요한 처세 덕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교의 수행(修行)에는 열교(開) 닫음(遮)의 절차를 중요시한다. 풀고 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부처님의 설법 또한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 개(開)와 차(遮)의 높낮이를 조절했으며 선어록(禪語錄)에서 만나는 선문답(禪門答) 또한 개(開)와 차(遮)를 자유롭게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늘을 살아가는 생활의 지혜는 섭수와 절복의 자비에서 개(開)와 차(遮)의 생활 습관에서 사랑도 행복도 가꾸어 가길 배울 뿐이다. 결국 둘은 틀이 아닌 하나이다.

희담석 건강용품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www.hyunbulshop.com

희담석 지킴이 염주세트
직경 8mm

· 구 성 : 108염주 + 합장주
· 판매가 : 28,800원

희담석 108 염주세트
직경 12mm

· 구 성 : 108염주 + 합장주
· 판매가 : 40,800원

희담석 108 염주세트
직경 10mm

· 구 성 : 108염주 + 합장주
· 판매가 : 30,800원

*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빠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무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 희담석(稀潭石, 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방석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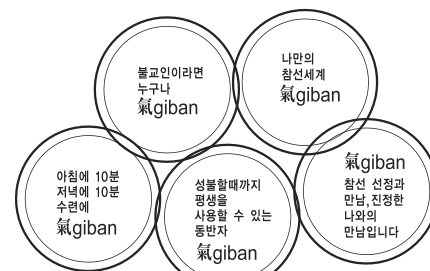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셔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입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뒤틀면) 8cm]



기반방석 내부



www.hyunbulshop.com